



UNCCD COP10

is set to take 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a country with advanced green policies

Sustainable Land Management **Business Forum**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설립 근거와 배경

10개년 전략계획(The Strategy)의 채택은 UNCCD의 중요 이정표적 사건 중 하나이며 협약의 이행을 지지하는 국제적 협동의 결과이다. 전략계획은 피해지역의 사막화, 토지황폐화를 방지하며 가뭄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전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는 UNCCD의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러한 공헌은 전략계획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재확인된다. 전략계획의 이행과 전 세계 회원국의 참여로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 UNCCD는 정부, 투자자, 민간기업, 민간단체들의 지속가능한 토지관리(SLM)로의 긍정적, 협력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상호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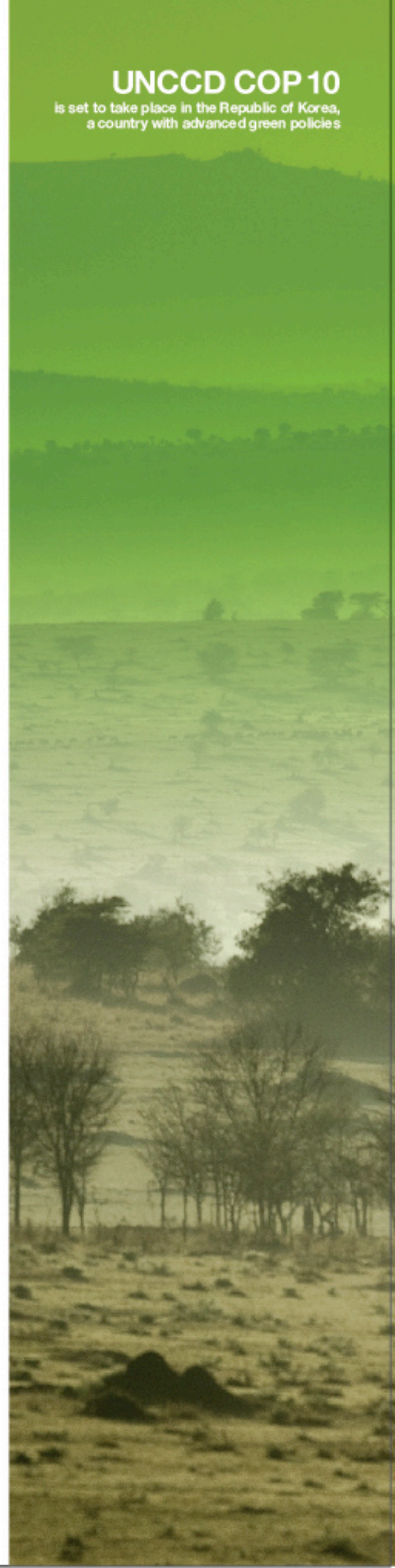
UNCCD에서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럼은 전 세계 토지·생명·환경 관련 기업들이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위원회(WBCSD), 국제상공회의소(ICC) 등과 협력하여 개최할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토지·생명·환경 관련 기업 CEO 등 100분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증가하는 요구사항의 조화

매우 놀랍게도, 사막화의 위험에 처한 지역은 재생가능 에너지, 환경보호 관광, 식량생산 등 아직 미개발된 유망하고 많은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다. 피해지역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 간의 더욱 밀접한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여 건조지역을 재발견하고, 이러한 기회들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UNCCD는 토지문제에 대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로서 SLM에 관한 정책결정자, 정부 간 기관, 과학자,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UNCCD는 비즈니스 업체에 두 가지의 유용한 이점을 제공한다.

- 정부와 기업체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 중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를 촉진하는 공동 기반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현 인류가 첨단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구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급격한 토지 개발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 그리고 기후변화 및 인간 활동에 의한 사막화 현상 등이 바로 지구를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문제입니다. 이 중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현상은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문제로, 사막화로 인한 숲의 훼손은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를 야기 시키고,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가 사막화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UN에서는 전 세계적인 토지 황폐화 문제 해결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1994년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하였습니다. 협약의 최고 결정기구인 총회(COP)는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UNCCD는 토지문제에 대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로 정부와 기업체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중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UNCCD 제10차 총회는 지난 50년간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해 온 대한민국 경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녹화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토지 황폐화 문제 해결의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UNCCD 제10차 총회는 피해국에게 토지 회생 기술을 전수하여 토지 황폐화 방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간과 기업체는 토지 황폐화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하고, 성공적인 제10차 총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UNCCD 제10차 총회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참가를 통해 기업은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사막화 방지 및 황폐화된 토지 소생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場)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전 세계 토지·생명·환경 관련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업가들이 정책 결정자에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야말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토지 보존에 창조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업인 포럼' 참가를 통해 생명을 위한 토지를 지켜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이번 UNCCD 제10차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업인 포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이돈구
산림청장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럭 나까자
UNCCD 사무총장

Forum for Land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참가 제안서

매년 대한민국의 1.2배에 달하는 토지가 황폐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0만ha 이상의 면적이 조림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산림 면적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토지 황폐화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조림을 통해 건조지에서의 황폐화된 토지를 소생시키고,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기적적인 조림 사업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력은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등의 정책 리더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들은 큰 책임감을 갖고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많은 기회를 창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입니다. 최근 토지 황폐화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주원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이 에너지에 쏟았던 노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명의 근원이자 경제 생산성의 바탕인 토지에 쏟을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토지 황폐화는 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물 부족과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안자 일동은 금년 10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UNCCD 제10차 총회에서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에서는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의 전지구적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경 파괴의 주 원인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라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의 수호자가 되는 기업들은 전지구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UNCCD 기업인 포럼 제안자 일동


Land For Life

개요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기업들에 토지의 중요성 및 사막화, 토지 황폐화, 가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이를 통해 건조지에서의 토지 황폐화 방지 활동을 촉구시킬 목적으로 개최 되는 것으로, UNCCD 제10차 총회 기간 중 이틀간(10월 17~18일)에 걸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UNCCD에서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럼은 전 세계 토지·생명·환경 관련 기업들이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위원회(WBCSD), 국제상공회의소(ICC) 등과 협력하여 개최할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토지·생명·환경 관련 기업 CEO 등 100분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 
- 기업인 포럼 참가 등록 (2011년 8월 1일~9월 15일)
 - 기업인 포럼 의제·자료집·홍보부스 이용 안내서 송부 (9월 15일~9월 30일)
 - 기업인 포럼 추가 의견 수렴 (10월 1일~10월 10일)
 - 비즈니스 포럼 개최 (10월 17-18일)
 - 10월 17일
 - 오전 고위급 회의 및 개막식 참관
 - 오후 기업인 포럼 (비공개)
 - 저녁 UNCCD 고위급 환영만찬 참가
 - 10월 18일
 - 오전 기업인 포럼 창립식
회의 결과 정리 - 발전 방향 토론
기자회견
 - 오후 고위급 회의/총회에서 기업인 포럼 결과 발표
 - 비즈니스 포럼 향후 계획 송부 (12월)



UNCCD
COP10
Gyeongnam Korea 2011

비전

토지·생명·환경 관련 기업과 기업인들의 명예의 전당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전 세계 환경·생명·토지 관련 기업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토지 보존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던 기업인들에게는 포럼을 통해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임업 등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왔던 기업인들에게는 지속적인 토지 관리를 통해 영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유함과 동시에 토지 관리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다른 기업과 지역에 전수함으로써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의 모임이자, 새롭고 빠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론티어,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어드바이저,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액션 리더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 및 분야와의 소통과 비전 공유를 통한 협력 활동 전개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기업 CEO를 주축으로 각국 정부 관계자 및 학계,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국가 및 분야와의 소통·비전 공유를 통해 상호 간에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에게는 기업의 선진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로부터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한 조언을 제공 받으며, 기타 관련 민간분야와의 실질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토지의 생산성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산업별 자율적 가이드라인 운영

매년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원 기업 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모금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원 기업들의 자발적인 토지 황폐화 방지 활동은 다른 기업에 전파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기 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국제적인 의제를 주도하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내 글로벌 500개 기업 초빙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단순히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토지 황폐화 방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지속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서포팅하며, 정부의 정책에 기업의 선진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할 예정이고, 모든 회원이 모임에 초대될 것입니다.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은 지속적인 활동 및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이번 제1차 포럼에서 100개 정회원사를 초빙하고, 장기적으로는 500개 이상의 정회원사 초빙을 통해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10개년 전략계획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임무와 조화를 이루면서 UNCCD 사무국은 '기업인 포럼'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사용하여 UNCCD 프로세스에 기업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인 포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정치인, 정책결정자, 정부 대표,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기업 CEO 및 지도자들이 모여 토지 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고 협력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방법을 숙고할 것이다.

이 포럼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분야에서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로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포럼을 통해 비즈니스 분야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기업의 능력과 창조성이 전 지구적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이 포럼은 건조지 시장에서 기업의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활동 기회를 개발하여, 기업이 환경 보호를 지원하고, 피해 생태계의 상태를 개선하며, 주민의 생계 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건조지에서 민간분야 투자를 위한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마련하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체의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정

다가오는 UNCCD 제10차 총회(2011년 10월 10일~21일, 대한민국 창원)는 약 200 개국의 고위급 대표자들이 모여 토지황폐화와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것이며 '기업인 포럼'을 착수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총회의 첫 주에는 잠재적 파트너인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비공식적인 회의가 열릴 것이다. 둘째 주에는 UNCCD 의사결정 과정에 전 지구적인 관심이 모아질 총회 고위급 회담(2011년 10월 17일~18일)과 함께 '기업인 포럼'이 공식적으로 발족될 예정이다.

포럼의 발족은 총회 주최국(대한민국)과 민간분야 및 비즈니스분야의 선두적 기업과 협조하여 UNCCD 사무국이 주최한다. UNCCD 사무국은 다른 파트너 기관의 자문을 받아 비즈니스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SLM)의 의미와 민간분야의 UNCCD 프로세스 참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견해 보고서(position paper)를 작성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 혜택

포럼 정회원은 다음의 혜택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UNCCD 총회 옥외 전시관 '홍보 부스'

UNCCD 행사기간(10월 10일~21일) 동안 운영 예정인 옥외 전시관의 '홍보 부스'를 비즈니스 포럼 참가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첨단 기술 및 제품 등을 총회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급 개막식 및 고위급 환영 만찬 참가 자격 부여

포럼 참가자에게는 고위급 개막식에 참가하여 각국 정상 및 장관급의 사막화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고, 고위급 환영 만찬 참가를 통해 기업의 입장을 정책 결정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 기업인들과의 지속적 교류

포럼 정회원은 UNCCD가 개최하는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에 초대될 것입니다. 연례회의 참가를 통해 회원 기업 간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국제적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전 세계적 기업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가 방법

- 참가 대상 - 기업 회장, CEO, 임원
- 참가비 - 없음, 자발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 등록 서류 - 가입 동의서 1부

'생명의 토지를 위한 기업인 포럼' 참가 접수 및 문의처

뉴패러다임 정책연구소
158-811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04-1 이레빌딩 5층
대표 문국현
Tel. 02-2646-2001 Fax. 02-2646-4278
E-mail. moonkhkorea@yahoo.co.kr

산림청 국제협력과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담당자 정지철
Tel. 042-481-8889 Fax. 042-481-8884
E-mail. stopiron@forest.go.kr

녹색사업단
302-12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206호
담당자 이경훈
Tel. 042-603-7325 Fax. 042-603-7310
E-mail. lk123h@kgpa.or.kr